

# '그 때 그 시절'을 돌아보는 역사

## 정부 수립 50돌 맞춰 출간된 반세기 역사 다룬 책들

바로 어제다. 그렇지만 어제의 역사를 다룬 역사책을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사 교과서에서 석기시대 이후 시대에 대한 서술은 오늘에 가까울수록 길어진다. 일례로 조선 후기를 다룬 분량은 고려시대 전체와 맞먹는다. 해방되는 해에 정점을 이룬 교과서의 역사 서술 '가속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계기로 급격히 속도를 늦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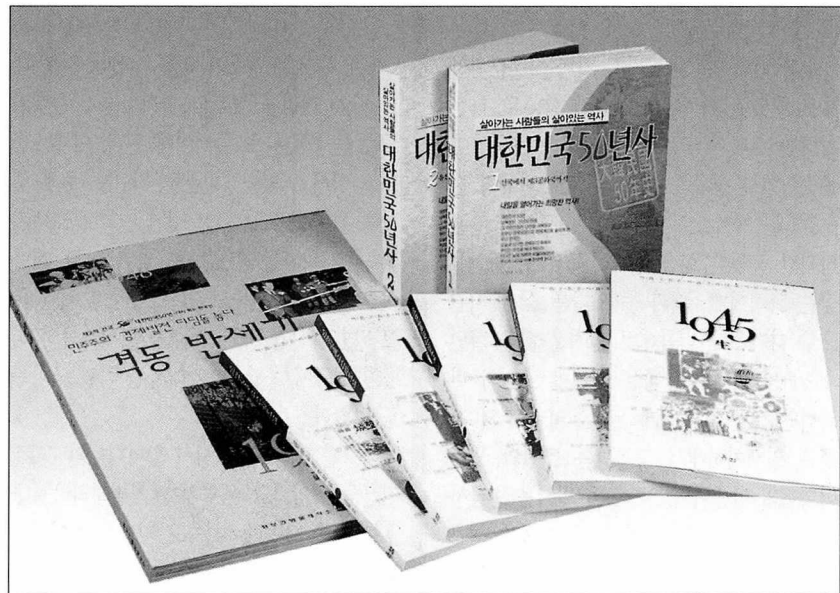
국사 교과서는 현대사가 고대사와 다음없다고 가르쳐온 셈이다. 1980년대 후반 일련의 현대사 서적들에 가해진 탄압은 진보적인 역사관을 빌미로 삼기는 했지만, 현대사가 선사시대에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과민반응은 아니었을까. 정부 수립 50돌을 맞아 출간된 몇권의 역사서적은 그런 신경증이 더이상 발붙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없는 것은 또 있다. 이들 책에는 배타적인 역사관이 보이지 않는다. 지은이나 엮은이가 정통 역사학자도 아니다.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역사'를 내세우는 《대한민국 50년사》(임영대 지음)는 방대한 분량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두권 합쳐 900쪽에 넘는다. 이 책은 정부별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정부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로 나누어 대한민국의 '숨겨진' 반세기를 훑고 있는 '통사(通史)'다.

### 숨겨진 반세기의 통사

그런 까닭에 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언급하고 있는 제1권은 첫머리에 '숨을 고르느라'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해방과 미군정>은 해방 3년의 역사를 100여쪽에 걸쳐 다뤘다. 비중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연보를 신는 등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제1권에서는 여운형·이승만·김구·윤보선·장면 같은 정치가가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전체 윤곽을 그려내는 가운데, 문화계 관련 사항의 비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채롭다. 이런



점은 출판문화에 관한 서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해방과 미군정>편의 출판관련 사항은 몇개의 출판통계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분량이 약간씩 늘어나기는 했지만,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출판문화는 언론과 문학

사이에 어정쩡하게 존재한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에 이르러 비로소 독립된 문화의 대접을 받게 된다.

문화부에서 '출판문화'의 실질적 독립은 제6공화국에서 이뤄진다. 이 절의 서두에서 저자는 "6공화국의 출판 정책은 한마디로 '약간의 개량과 더 강한 탄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50년사》는 이밖에도 영화·대중가요·스포츠 같은 문화 전반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특히, 제4공화국에서 문민정부까지 다룬 둘째권은 문화부문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그래서, 문화관련 부문만 떼내 엮으면 한권의 번듯한 '한국현대문화사'로도 손색 없다.

### 출판계 소식

## 《도서신문》 무기한 휴간

### 적자누적 감당기 어려워 발간 중지 선언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 《도서신문》의 창간호.

주간 《도서신문》이 제209호(8월 17일자)를 끝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가며 사실상 폐간을 선언했다. 4여년 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출판계의 사랑방'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도서신문》은 1994년 4월 4일 창간, 저작권 대행사인 임프리카 코리아(대표 홍성일)가 제157호(1997년 5월 26일자)까지 꾸려왔다. 이후 신문의 판권은 웅진

출판(대표 윤석금)으로 넘어가 1997년 7월 21일 재창간호를 선보인 후 제209호까지 발행해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신문》은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충실한 출판정보매체"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실전출판마케팅'과 '문단골 이야기' 같은 기획연재물로 독자의 호응을 얻었는가 하면, 전면을 할애하는 서평과 풍문으로만 떠돌던 베스트셀러 사재기 현장의 고발기사로 주의를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출판유통에 대한 심층기사는 《도서신문》의 특장이었다.

《도서신문》의 폐간은 IMF체제에 따른 경기불황과 적자 누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웅진출판은 신문을 인수하면서 판권료를 포함해 수익원을 투자했으나 적자 누적을 더 이상 감당기 어려워 발간 중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로써 민간기업에 의한 출판매체는 발붙이기 어렵다는 출판계의 통설이 다시금 입증된 셈이다. <최성일>

### '문화부' 내년 학술도서 지원 25억원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는 지난 8월 26일 내년도 우수학술도서 지원예산을 2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오지철 문화산업 국장은 "올해 우수학술도서 지원금으로 19억원을 집행, 국내에서 발간되는 우수학술도서 초판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사들여 공공도서관을 통해 소화한 셈"이라며 "앞으로 예산을 50억원까지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8월 6일 98년도 우수학술도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30명의 심사위원(위원장 유재천 한림대 교수)이 총 241종의 도서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총류 13종·철학 26종·종교 11종·사회과학 61종·순수과학 12종·기술과학 35종·예술 23종·문학 28종·역사 32종이다.

### 자질한 우리네 일상

<연도별로 보는 우리 삶의 기록> 시리즈(우성흠 지음)는 말 그대로 연도별로 우리네 삶의 모습과 역사적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 시리즈는 58권짜리 기획으로 1945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의 자취를 해마다 한 권에 담는다. 이번에 나온 것은 1차분인데 1945년에서 49년까지 다섯권이 출간됐다. 책 제목은 해당연도에도 생(生)을 덧붙였다.

이 시리즈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보다는 자질한 일상사에 주목한다. 《1945생》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해방은 정치체제에 앞서 여성들의 머리 모양을 먼저 바꿨다. 해방이 오자 일제 말에 금지됐던 퍼머넌트가 부활했다. 여성들은 퍼머나 세팅, 또는 아이론으로 머리를 부렸지만, 머리 전체에 웨이브를 내

# 삶에 융해된 문화를 지키는 안동사람

임재해 엮음 《안동문화의 수수께끼》를 읽고

고영진 · 광주대 교양학부 교수

는 것은 당시로서는 고난도 기술. 그래서 뒷머리는 적당히 빗고, 앞머리를 잘게 볶았다. 이런 머리 모양을 '아라이'라고 불렀다. 아라이는 잘게 볶는다 뜻의 일본말.

5월 5일 어린이날과 졸업가는 《1946생》이다. 8·15광복을 맞아 어린이날도 5월 첫 일요일에서 5월 5일로 바뀌었다. 어린이날 행사에서 불리는 '어린이날 노래'는 1948년에 만들어졌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하는 '졸업가'는 어린이날 노래보다 2년 앞서 나왔다.

〈연도별로 보는 우리 삶의 기록〉 시리즈는 '외우는' 역사가 아닌 '체험하는' 역사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사진 자료를 적절히 배치했다. 올해 안에 5권 정도 더 펴내고, 내년에는 다달이 3권씩 출간할 계획이다. 2002년 완간 예정.

《격동 반세기》(문화관광부는 대한민국 건국 및 정부수립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50년간의 역사적 주제 50개를 선정해 엮은 화보집이다. 이 책은 정치·경제·남북관계·문화·세계화 등 5장으로 나눠 사건을 요약하고, 사건을 상징하는 사진을 덧붙였다.

〈정치발전〉은 정부수립을 필두로 4·19와 5·16,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을 거쳐 여·야간 최초로 이뤄진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르는 민주주의를 향한 영광과 좌절을 되짚었다. 〈경제발전〉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연 '한강의 기적'을 압축했다. 또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경제 환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도 기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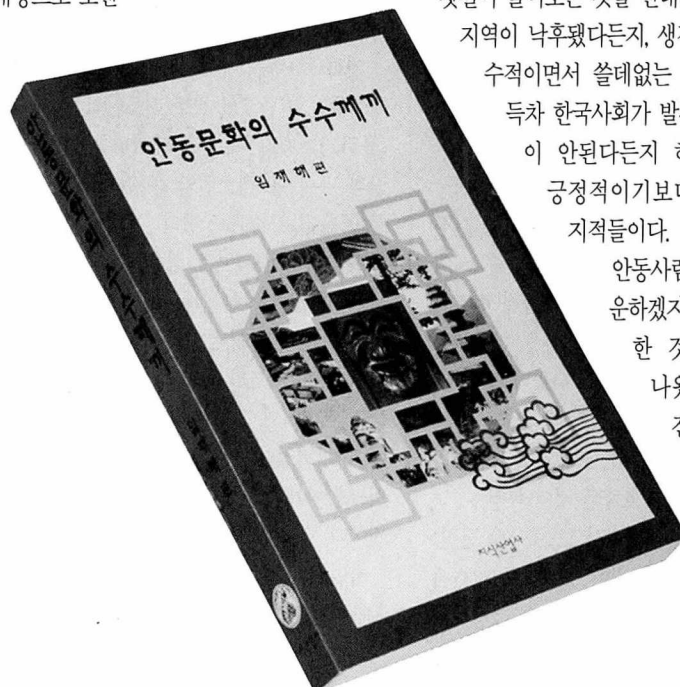
〈세계 속의 한국〉은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들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최근 맹활약 중인 해외 스포츠 스타 3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코리언 특급' 박찬호, 세계 골프계의 여왕 박세리, '나고야의 태양' 선동열이 그들이다. 〈최성일〉

·〈대한민국50년사〉  
들녘/A5신/각 450면 내외/각 20,000원  
·〈연도별로 보는 우리 삶의 기록〉  
윤컴/A5신/각 150면 내외/각 4500원  
·〈격동 반세기〉  
정부간행물제작소/B5/218면/8000원

지난해 겨울 어느 한 여자고등학교에 강연을 갔던 기억이 난다. 당시 강연 주제는 〈전통이란 무엇인가〉였다. 강연을 들을 대상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곧 대학을 가거나 사회로 진출할 고3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정한 주제였다. 그러나 강연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주임선생님이 강연주제를 소개하자 여기저기에서 '에이~'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마디로 진부하고 재미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였다.

'전통'이라 하면 고리타분하다, 보수적이다, 억압적이다, 있어봤자 별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며 커운 학생들에게 전통의 의미와 효용성을 그것도 9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올바르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사실 만용에 가까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결국 옛 지도와 그림 등 시청각자료까지 동원해서 막판에 가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다시금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게 해준 기회였다.

제목부터 금금증을 주는 《안동문화의 수수께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책이 아닐까? 이 책은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에서 〈안동문화의 수수께끼를 푼다〉는 주제 아래 1994년부터 2년에 걸쳐 다달이 시민을 대상으로 열었던 강좌의 내용을 다듬어 낸 것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오랜



안동은 전국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통이 잘

보존된 곳이다. 재미있게 쓴 안동의

역사, 문화재 이야기를 단숨에

읽고 나면 왜 안동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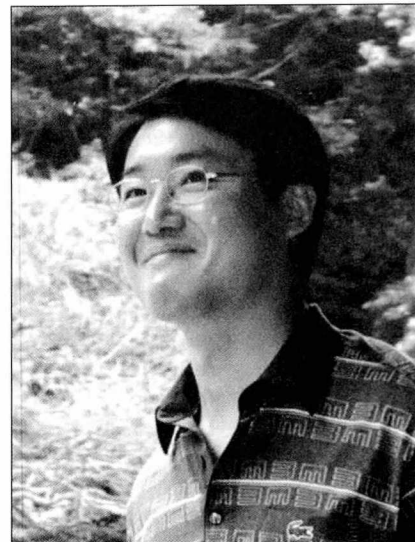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간 강좌를 꾸준히 연 것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엮어낸 것도 대단하다.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안동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없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는지 모른다.

사실 필자는 안동에 대해 잘 모른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하회마을에 간 것과 학과에서 도산서원 답사할 때 안동 시내를 지나쳤던 것이 인연이라면 유일한 인연이고 조선시대 유학사를 공부한답시고 안동 출신 유학자들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어본 것이 전부이다. 그밖의 지식도 주위사람에게 단편적으로 들은 것들이다. 그러니 제대로 일리가 없다.

그 알량한 지식을 예를 들면, 안동은 남녀 차별이 매우 심한 곳이라든지, 일제시대 기차길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그 이후로 지역이 낙후됐다는지, 생각은 대단히 보수적이면서 쓸데없는 우월의식만 가득차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지 하는 것들이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지적들이다.

안동사람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다. 책에도 나왔듯이 안동은 전국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고영진 교수.

다. 그리고 그것들은 경주처럼 박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안동사람들의 삶 속에 융해되어 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안동하면 전통이다'는 정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통에 대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근현대사가 걸어난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통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전통이 살아숨쉬는 안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리 만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아주 시의적절하게 나왔다. 안동사람에게 다시금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동의 문외한들에게 안동과 안동 다음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재미있게 쓴 안동의 역사, 문화재, 신앙 이야기들을 단숨에 읽고 나면 왜 안동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안동으로 답사가 안동사람들을 만나볼까 한다. ◆

지식산업사/A5신/368면/13,000원